광주기업 세계로… 광주시, 'CES 2026' 공동관 운영

신산업·혁신기술·인공지능 등 지역기업 17개사 20일까지 모집
내년 1월 CES 2026 참가… 전시부스비·항공료 등 종합 지원
혁신기술 등 보유 지역기업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기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내년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참가할 지역기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로, 최신 기술과 미래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전세계 바이어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행사다.

광주시는 광주공동관,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Startup)' 통합관 참가기업을 포함해 총 17개사 규모로 광주관을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2개 기업이 늘어난 규모이다. 모집대상은 신산업·혁신기술·인공지능 분야 지역 중소기업이다. 광주시는 선정기업에 ▲전시부스비 ▲항공료 ▲물류비 ▲통역비 ▲'CES 혁신상' 신청비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참가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마케팅 실무교육과 글로벌 전시회 대응력 향상 프로그램도 제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자우편(CES@gicon.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누리집이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도약팀(062-610-2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 강기정 시장이 직접 지역기업들을 이끌고 'CES 2023'에 처음 참가한 이후, 매년 지역 기업들과 함께 CES에 참가하며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넓혀왔다.

특히 올해 열린 'CES 2025'에는 지역기업 15개사가 참가해 광주의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렸다. 전시 기간 6300명의 방문객에게 광주의 혁신기술을 선보였으며,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371건, 570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

㈜고스트패스 등 광주의 6개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고스트패스는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보안·결제 솔루션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CES는 기술력을 갖춘 지역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광주시는 기업들의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세계 무대에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2곳 선정
휴먼리소스·참조은푸드… 일자리 창출·지역 상생 기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의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휴먼리소스 유한회사와 ㈜참조은푸드를 선정했다.

'광주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28개의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두 기업에는 각각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경영 상담(컨설팅)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휴먼리소스 유한회사(대표 최경옥)는 건물시설관리, 청소, 방역, 컨설팅 등 건물관리 전문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참조은푸드(대표 김화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위탁급식 전문 기업으로,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통해 지역 상생을 실현하고 있다.

최경옥 휴먼리소스(유) 대표는 "광주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선정돼 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두 기업이 지역사회 내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우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지속할 수 있는 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인 기자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출산율 회복 실질적 변화 이어져
전문가·부모 목소리 반영 전국 최초 18세까지 월 20만원 지원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만에 출산 가정의 호응 속에 현장에 안착하며,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분기 기준 전남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0.82명)보다 0.31명이나 높다. 1~3월 누적 출생아 수도 2천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

이같은 출산지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1.03명·전국 1위)이 1.0명대를 회복한 저출생 추세 반전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한 출생기본수당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총 4천320만 원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은 정책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들이 직접 제기한 학령기 이후 양육 부담을 반영한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이다.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기존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넘어, 자녀 성장 전반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정책 설계가 주효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기존 지원은 대부분 바우처 형태이고 영유아기에 집중됐지만, 출생기본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특히 18세까지 이어져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 자녀를 양육 중인 또 다른 어머니는 "출생기본수당 덕분에 교육비나 식비 등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막내 덕분에 '함께 키우는 전남'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임채일 기자

광주·전남 1분기 여·수신↑… 은행 대출 증가폭 확대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분기 여·수신이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은 수신, 반대로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은 여신이라고 부른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일 제공한 2025년 1분기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역 예금은행의 수신은 전분기 대비(-599억원→ +9553억원) 증가세로 전환했다.

예금(+4654억원→ +3502억원)은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의 감소 전환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시장성 수신(-5253억원→+6052억원)은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늘어난 데 힘입어 증가 전환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전분기 대비 증가폭(+1조6563억원→ +2조8636억원)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중 예금은행 여신은 전분기 대비 증가(-5419억원→ +1조1048억원)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대출이 증가 전환했고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커지면서 기업대출(+3321억원→ +8031억원)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1609억원→+3015억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 증가폭이 늘어났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 축소(+6430억원→ +2205억원) 됐다.

금융기관별로 상호금융(+5483억원→ +2083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새마을금고(+1106억원→ -832억원)도 감소 전환됐다.

차입 주체별론 가계대출(+1416억원→ -2660억원)이 감소 전환한 가운데 기업대출(+4923억원→+4121억원)의 증가세가 둔화됐다. /뉴시스

'경영난·인력난' 광주 뿌리산업 근속·복지지원 확대 절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 중인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광주지역 뿌리산업은 자동차, 가전, 금속부품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고금리·수요 둔화·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 요인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은 지역 뿌리기업의 인력난과 이직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로, 정규직 채용 인건비, 장기근속 장려금, 복지시설 개선, 주거비, 건강검진비 등 근로자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월 최대 30만 원, 최대 6개월인 근로자 주거비와 1인당 최대 30만 원인 건강검진비 항목은 사업 초기부터 참여 문의가 집중되며 조기 마감이 우려될 정도로 수요가 높다.

특히 이직률이 높은 뿌리산업 현장에서 거주 안정과 건강관리는 장기근속 유지에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현재 뿌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람이 안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을 시작해도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사업처럼 복지·환경 요소까지 고려한 고용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팔 기자